

“경정급 이상 전남청, 경감급 이하 광주청 가고 싶다”

전남경찰청 새해부터 ‘술링’

상반기 인사 앞두고 경쟁 치열... 뒷말 무성

오는 7월 광주지방경찰청 개청을 앞두고 전남지방경찰청이 새해부터 술링거리고 있다. 광주청 개청에 따라 대규모 자리 이동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개청 예정인 광주지방경찰청(5개 경찰서 제외)의 정원은 350여 명 정도. 경찰청은 이 중 250여 명을 신규 및 서울·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100여 명은 전남청에서 이동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남청은 계급별 정원을 따져 광주청과 합의해 인사(人事)를 단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전남청 소속 경찰 중 경감급 이하는 대부분 광주청으로 이동을 희망하고 있다. 광주청

으로 가면 전남도내 일선 시·군 등으로 옮겨다녀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없어지고, 시내 순환근무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전남청 K 경위는 “직인 10명 가운데 8~9명은 광주청으로 전임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녀 교육 및 서울·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선발하고 싶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정·총경급 이상 간부들은 승진 요인이 많은 전남청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 전남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청의 정원은 모두 7천600여 명. 이중 광주지역 일선 경찰서 1천여 명을 제외하면 6천600여 명 가운데

100여 명 만이 광주청으로 이동할 수 있어 광주청 전임을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전임을 위한 물밑 작업과 그로 인한 뒷말도 들리고 있다.

전남청은 이런 점을 감안, 광주청과 인사 교류를 정례화시키는 등 직원들의 우려를 최대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걱정을 수뇌부가 모두 알고 있다”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8~12일 총경급 인사를 할 예정이며, 전남청도 총경급 인사 이후 후속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광주청 개청에 따른 인사는 오는 6월께 있을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유사독감 환자 급증

1천명당 3명서 9명으로... 전국 세번째

인플루엔자(유형성 독감) 의심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D)는 지난해 11월27일~12월2일 외래환자 1천 명 당 3.20명이었으나, 구랍 3~9일 9.06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울산·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인플루엔자 유행이 우려되며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들에게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폐질환·심장질환·당뇨병 환자 등 만성 질환자 ▲65세 이상의 노인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요양 중인 사람 ▲생후 6~23개월 인구 ▲임신부 ▲의료인 ▲환자가족 ▲50~64세 인구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손 씻기나 기침예절 지키기 등과 같은 개인위생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유치원 급식시설 기준

3월부터 대폭 강화

오는 3월부터 유치원 급식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3일 입법에 고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조리실은 10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의 경우 전처리실·조리실·식기고 세척실 등으로 작업구역을 구획해야 하며 손 세척 및 소독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또 급식인원에 상관없이 조리작업을 일반작업과 청결작업으로 분리해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출입구·창문 등에는 방충·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연합뉴스

구름사이 햇살 방긋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1월 4일
(음 11월 16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조금	1~11℃
대전	구름맑음	1~10℃
대구	구름맑음	6~10℃
부산	구름맑음	3~12℃
서울	구름조금	-1~11℃
인천	구름맑음	-1~11℃
울산	구름맑음	-1~12℃
전주	구름맑음	2~10℃
충주	구름조금	-1~11℃
청주	구름맑음	-1~10℃
포항	구름맑음	2~10℃
제주	구름조금	0~11℃
목포	구름맑음	-3~11℃
여수	구름조금	-1~9℃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2.5m
남해동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3.0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4.0m

목포 밀물 < 02:09 썰물 < 07:37
여수 밀물 < 09:52 썰물 < 03:11

▲해돋이 07:41 ▲해질 17:33 ▲달출 18:04 ▲달짐 08:22

◇주간날씨 기상내선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5(금)	6(토)	7(일)	8(월)	9(화)	10(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2/9	-1/2	-4/1	-6/2	-6/3	-4/5

옛 광주시청사 철거공사 중지명령

안전시설 설치 미흡

광주시 동구 계림동 옛 광주 시청사에 대한 철거공사가 안전시설 설치 미흡으로 구청으로부터 일부 중지 명령을 받았다.

광주시 동구청은 3일 “계림동 주민이 옛 광주 시청사 철거 공사장에서 날라온 파편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해 음에 따라, 시공사인 황보건설에 일부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공사 현장의 가설 칸막이가 일부 찢기는 바람에 벽돌 파편 등이 날아가 인

근 K식당의 돌출간판이 부서지고 출입문이 파손됐다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건설사 측에 칸막이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지시했다”며 “칸막이 설치가 끝나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옛 광주 시청사를 매입한 (주)필하임플러스는 청사 부지(2천400여 평)에 5층 규모(연면적 7천953평)의 ‘필하임 마트’를 건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11일부터 황보건설에 하청을 맡겨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임주희기자 jhlim@kwangju.co.kr

교통안전분담금

582억 국고 귀속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신청이 2일 자정 만료되면서 전체 금액의 45%인 582억원 정도를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됐다.

광주·전남의 경우 구랍 4일 현재 74만여 명, 46억원 정도가 귀속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인별 국고 귀속액은 ▲운전면허증 소유자 50~5천400원 ▲자가용차량 소유자 400~1만199원200원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그러나 “환급 대상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고 ‘알아서 찾아가라’고 한 뒤 기한이 지났다고 국고에 귀속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이달 말까지 원고인단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2003년 2월 “분담금 환급시한을 2002년 1월1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 개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재판 중 환급시한이 4년 연장되면서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이승배기자 lsb54@



“면접 예쁘게 보여야지”

2007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의 마지막 관문인 대학별 논술·면접고사가 3일 본격 시작됐다. 동신대 정시 가운 스튜어디스학과에 지원한 학생들 3일 면접고사에 앞서 예쁘게 보이기 위해 화장을 고치고 있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관심끄는 판례 2편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퇴직금 보장”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국내업체에서 한국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을 사업자에게 제공했다면 국내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이모씨 등 중국인 산업연수생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1인당 760여만~930여만 원을 지급하

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급여를 수령했다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보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변호인, 피의자 진술 거부 권유 가능”

변호인이 피의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적극적으로 진술을 거부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배용준 판사는 3일 ‘일심회 사건’ 변호인 장모씨가 “변호인의 참여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처분 등에 대한 준항고 사건에서 “국정원장이 장씨에 대해 퇴거를

명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변호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수사관의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피의자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도록 조언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능동적으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권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세대스타·세기보청기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다세대별 무한재능 개념으로
세가지 첨단보청기 기술이 4세대로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3세대스타·세기보청기